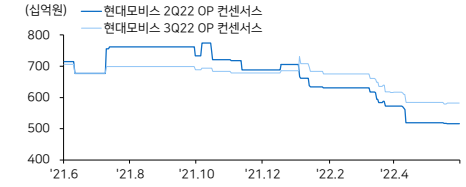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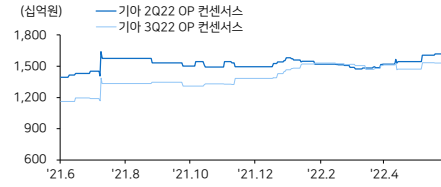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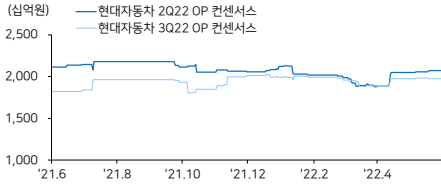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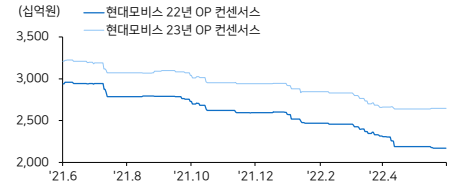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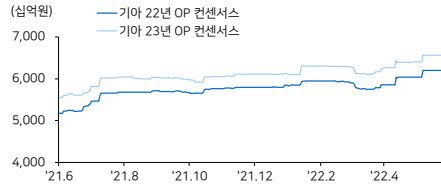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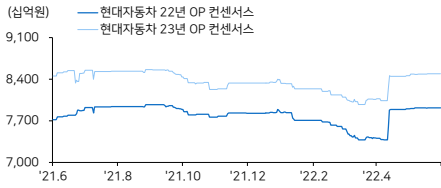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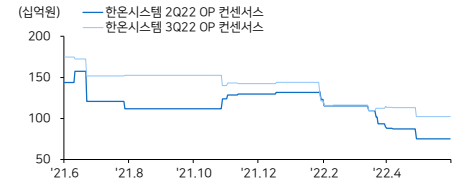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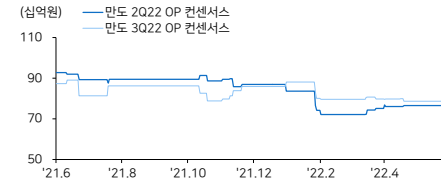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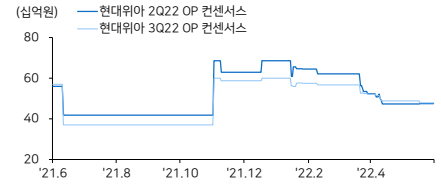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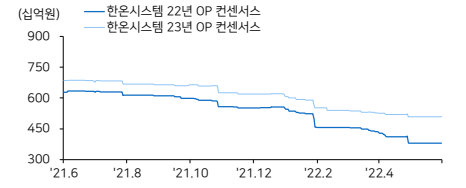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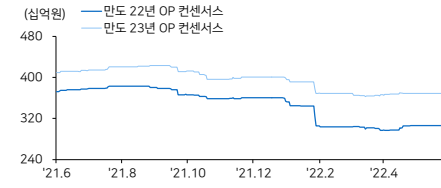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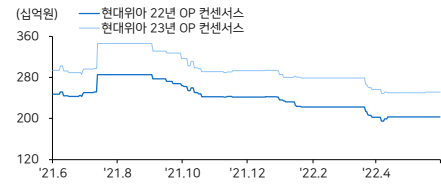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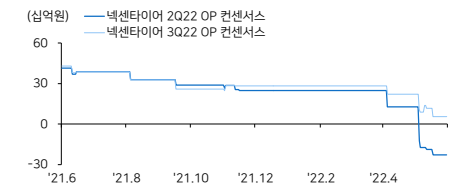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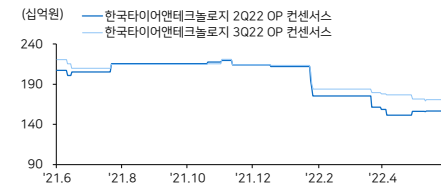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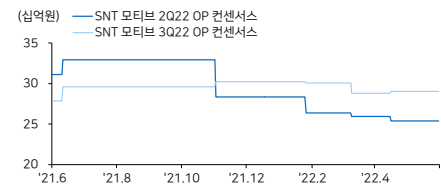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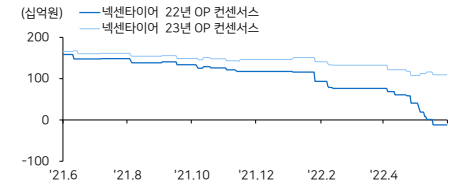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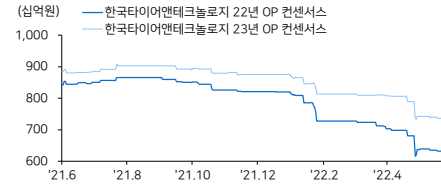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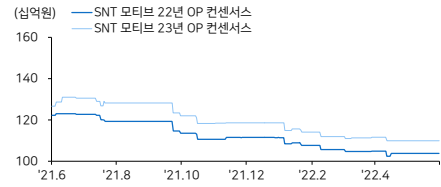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누적 판매 300만대...14년 결실 (이코노미스트)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약 300만대를 기록함. 올해 1~5월까지의 약 39.3만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함. 가장 인기있는 모델은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로 나타났다. 전기차 모델 중에서는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이 판매 1위를 기록. <https://bit.ly/30I8wWS>

자율주행 리더 꿈꾸는 중국... "안전성·경제성 다 잡을 것" (연합뉴스)

중국은 자율주행시장에 북미 시장보다 늦게 진입했으나, 정부 지원 속에 빠르게 성장하는 중. 대표주자인 바이두는 차량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현재 최신모델의 가격은 약 9,100만원 수준. <https://bit.ly/3zTFfyN>

Wholesale used-vehicle price indexes show slight seasonal increase in May (Automotive News)

JD Power의 5월 중고차 가격지수는 218.2로 4월 대비 2.1% 상승함. 전년 4~5월의 상승폭이 6.9%였던 것과 대비해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여전히 절대적 수치는 YoY 20.4% 상승하여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 <https://bit.ly/3QvGXfw>

Tesla achieves production of 1,000 cars in a week at Gigafactory Berlin (electrek)

Tesla는 Giga Berlin에서 주간 모델 Y 생산량 1,000대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Tesla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Giga Berlin, Giga Texas에서의 생산 확대를 이어가는 중. Giga Berlin은 여전히 2170 셀을 이용해 모델Y를 생산하는 중. <https://bit.ly/3tLmd9Y>

美조지아 주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배후 산업단지 개발 (THE GURU)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 (피치 카운티 포트 벨리) 일대 부지를 추가 매입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유치하고 조지아주를 전기차 대표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분석됨. <https://bit.ly/3zQ4wK2>

전기차 메이커 시가총액 글로벌 '톱10'...美·中 양분 (THE GURU)

컴퍼니마켓캡 (companiesmarketcap)은 시가총액 기준 순수 전기차 메이커 글로벌 '톱10' 은 미국과 중국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esla, Nio, Lucid, Li Auto, Rivian, Xpeng, Nikola, Fisker 순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 <https://bit.ly/3y4Q59k>

Nvidia highlights its partnership with NIO after AMD drama (CNEV Post)

NIO는 NVIDIA HGX A100를 이용하여 AI기반 자동차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있다고 Nvidia China가 Wechat에 언급함. NIO가 고성능컴퓨팅으로 디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강력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 <https://bit.ly/3N6UyHh>

GM hikes Hummer EV price by over \$6,000 as commodity, shipping costs rise (Reuters)

GM은 지난 금요일 자동차/트럭에 대한 높은 수요 가운데 원자재와 운송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Hummer EV 픽업트럭의 가격을 6,250달러 인상함. 기존 예약수량 77,500대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https://reut.rs/3HBZq62>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